

멕시코 면의 특성 살린 얼룩 실

멕시코 사람들은, 고가 높으면서 챙이 넓은 스페인의 전통적인 솜브레로(sombrero) 펠트 모자를 쓰고 멕시코 고유의 데킬라를 마신 다음, 멕시코의 민족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댄스 악단인 “마리아치(Mariachi)”에서 쾌활하게 “아스타 마냐나(hasta manana : 스페인어로 ‘내일 다시....’)”를 노래 부르면서, 낙천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러한 쾌활한 멕시코의 대지에서 뜨거운 태양 빛을 받으면서 자란 품질이 좋으면서 순백한 면화로, 일본 미에(三重)현에 있는 “미마스”가 원면 특화 소재로 “다코스”사를 생산하고 있다.

“미마스”는 형상을 변화시켜 보통 실과는 다른 독특한 실을 뽑는 것이 장기(長技)인데, “다코스”사는 정상적으로 곧고 반듯한 스트레이트사(straight yarn)로도 판매하고 있으며, 얼룩 실의 경우는 “다코스 스라로움”이라는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멕시코 면의 특징은 면 섬유 한 올의 1인치당 중량으로 나타나는 중량 섬도인 마이크로네어(micronaire)가 높아 굵은 편이지만, 섬유 속에 공동이 있어 부피에 비해 가벼우며 보온력이 좋고 흡습성이 뛰어나다. 또한 크림프성이나 탄력성도 좋다.

이러한 멕시코 면은 굿 미들링(Good middling : 미면 등급 기준)급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벌키성, 광택감이 있고, 염색성이 좋아서 깊은 맛이 있는 색으로 염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얼룩 실로는 7수와 9수의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7수는 뜻밖에 무난하고 점잖으며, 9수는 얼룩이 심하여 격한 느낌을 주는 표정이 색다르다.

“미마스”는 2002년 9월에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였지만, 2003년말 완전히 복구되면서 링 정방기도 최신형으로 개비하였다. 이 공장은 현재 멕시코 면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다코스”사로는 10수, 16수, 20수를 뽑고 있으며, 얼룩 실인 “다코스 스라로움”사로는 대부분이 데님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새로 도입한 최신예 정방기에는 콤팩트사 제조 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어, 앞으로 콤팩트 사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장차 어떠한 상품이 새로 개발될 지 기대하고 있다. ♣